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송문찬

2021, 내 나이 스물셋. 이제라도 나는 균형
을 깨^부려 고 한다.

어렸을 때 부터 나는 어머니를 걱정시
킨 적이 한 번 없는, 바르고 착한 아
이였다. 공부도 잘 하고, 말 잘 듣는,
그런 아이. 당연히 부모님을 포함한 주
변에서의 ~~높~~ 기대가 컸고, ^{내가} 열심히 공부해
서 좋은 대학, 좋은 직장에 가기를
바랐다.

하지만 ^{이제} 나는 꿈이 따로 있었다. 뮤지
션이 되는 것이였다.

조심스레 아껴두었던 소중한 꿈을 세
상에 꺼내 보려 했지만, 어머니는 나에게 균
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. 안정적인
저리어와 가끔씩 즐기는 취미 사이에,
내가 잡아야 하는 균형이 있다고. 처음
이였다.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, 나를 향
한 진심과 그 단어의 무게감을 너무 나
잘 느낀 어린 나는, ^{그렇게} 균형을 지키기로

제 1 회 세계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영세대학교

한글 성명: 송민찬

마 음 을 먹 었 다 .
세 월 이 흘러 , 나 는 사 랑 하 는 가 족 라
정 중 한 인 사 를 하 고 유 학 길 에 나 서 게
되 었 다 . 장 학 공 을 한 번 놓 치 지 않 고
성 실 히 학 교 생 활 을 이 어 나 갔 던 어 느
날 . 나 는 친 구 와 함 께 '싱(sing)' 이 라 는 영
화 를 보 러 집 을 나 섰 다 . 귀 열 고 활 발 한
동 물 들 이 노 래 오 디 셴 프 로 그 램 을 참 가
하 는 일 화 를 다 룬 유쾌 하고 우 머 스 러 운
애 니 메 이 션 영 화 였 다 . 부 모 와 보 러 온 아
이 들 도 많 았 고 모 두 가 사 랑 스 러 운 개 러
터 의 매 력 에 빠 져 즐 겁 게 웃 으 며 간 람
했 다 .
나 만 배 고 .
나 는 아 직 도 내 가 왜 그 령 게 평 평
을 었 는 지 모 르 겠 다 . 친 구 는 느 닷 었 는 내
리 액 션 에 크 게 놀 라 티 슈 를 건 네 주 였 고 ,
옆 에 앉 았 던 아 이 는 꽃 : 물 가 지 흘 리 고 :
있 는 내 모 습 이 걱 정 됐 는 지 어 버 니 메 게
'저 누 나 는 관 찰 아 ?' 라 고 물 어 봤 을 기 역

제 1 회 세계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영세대학교

한글 성명: 송은찬

이 있다. 아무튼 나는, 그 ^{자리에 있던 어떤} 아이보다도
 침묵하고 서럽게, 영화가 끝날 때까지 ^체묵
 을었다.
 그때부터 내가 ^{그토록}잘 유지해온 균형이
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일까. 영화 속 라
 음껏 노래하던 꼬끼리가 너무너무 되고
 싶었다. 그런 내 자신이 웃기고 가엾을
 정도로 음악에 대한 갈망이 부풀어올랐
 다. 음악하고 싶다, 노래하고 싶다.
 그렇게 나는 수첩을 꺼내 마음속에 담
 았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고 피아노
 앞에 앉아, 또는 기타를 들고 흥얼거리
 며 나만의 노래들을 만들었다. 하루 종일
 할 수 있었다. 가사의 한 음절을 고민
 하는 일, 멜로디의 영롱함을 더하는 일.
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었고, 리듬에 빠
 져도 헤쳐나올 힘이 조금도 부족하지
 않았다. 정말 행복했다.
 그런데 흔들렸던 균형이 점점 더 위
 태로워졌다. 유학생이라 휴학을 할 수

제 1 회 세계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송우찬

없었고 학업과 창작, 그리고 앞날에 대
 한 준비까지 병행해야 했다. 처음에는
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떨어지는 학
 점과 밤새 작업은, 나바진 건강이 ~~짜짜~~
 나에게 내 한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. 결
 국 길거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
 날.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에도 비틀어진
 균형 때문에 초조해했다.
 그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다. 내가 원
 하는, 또는 나에게 맞는 균형이 내가
 지켜왔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?
 2020년 9월, 힘없이 세브란스 응급 병상에
 누워있었던 나. 그런 ^{나를} 가장 미너지 넘치게
 만들어준, 스쳐 지나갈 뻔했지만 간신히
 잡아 ^{고마운} 생각이 기미 아직도 기억이 생생
 하다. 그래, 나만의 균형을 찾자.
 그 후, 나는 더욱 열심히 노래를 만
 들었고 앨범까지 내게 되어 진정한 아
 티스트가 되었다. 나의 이야기를 나만의
 개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,

제 1 회 세계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0경세대학교

한글 성명: 동우찬

나의	노	래	말	로	아	프	고	지	친	사	랑	들	에	게
위	로	를	건	네	는	일	.	형	재	의	나	는	더	없이
행	복	하	다	.	떨	어	지	는	성	적	을	받	고	자
책	라	와	절	에	바	지	기	도	하	지	만	,	다	시
작	업	대	앞	에	앞	아	있	을	때	면	나	의	가	치
와	존	재	의	비	를	매	일	매	일	개	닫	고	있	다
.														
이	제	곧	졸	업	을	앞	둔	나	지	만	내	음		
악	인	생	은	아	직	시	작	에	불	라	하	다	.	내
생														
의	무	인	동	력	,	억	슬	려	운	꿈	에	.	대	한
갈	등	을												
그	작	은	명	화	관	에	서	서	럼	게	배	내	야	만
했	던	어	린	소	녀	를	평	온	하	게	만	든	길	.
그	길	을	계	속	건	고	눈	은	나	는	어	저	면	
어	머	니	가	가	르	쳐	죽	냈	던	균	형	을	개	야
할														
지	도	모	르	다	.	아	니	,	개	보	아	야	만	한
다	.	나												
만	의	균	형	안	예	는	.	물	전	히	내	개	로	만
채	워	져	야	하	니	까	.							
20	21	,	내	나	이	스	를	셋	.	아	직	늦	지	않
았														
다	.	날	은	화	창	하	고	,	꽃	들	은	한	들	한
들														
나														
를	향	해	춤	을	춘	다	.							